No.1876

하늘마음

서로 사랑하여라

[루오(1871-1958), 판화, 59×42.5cm, 1927년, 프랑스]

루오는 20세기 최고의 종교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체험한 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흑백 판화 연집 '미세레레'(Miserere,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를 만들었다.

'서로 사랑하여라'는 58점으로 된 판화 연집 가운데 한 작품이다. 십자가 곁에는 성모 마리아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가 경배하는 자세로 있다. 예수께서는 죽으면서도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셨다.

2019년 5월 19일 주님 부활 제5주일 (백)

제1독서 사도 14,21ㄴ-27

화 답 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제2독서 묵시 21,1-5ㄴ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요한 13,31-33ㄱ.34-35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www.foryouth.or.kr)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 회관 106호
발행인 | 박범석 필립보 신부님 구독신청 | 가톨릭 출판사 (대표전화 _ 1544 - 1886)
미디어부 | 이종민 대건안드레아, 김병수 베드로, 정연욱 소화데레사, 오세용 세례자요한, 강미림 엘리사벳, 문혜지 아셀라, 양유정 미카엘라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가톨릭 출판사
《하느님과 트윗을》 중

지옥은 의식적이고 결정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이 하느님의 사랑과 영원히 단절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CCC 1057항 참조) 그것들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상태를 나타냅니다.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문은 닫혔습니다(마태 25,10 참조). 그들은 하느님의 도착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의 재능을 낭비한 종도 거부됩니다.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마태 25,30) 심판의 날에 주님은 사람들을 의인과 불의한 이로 가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불의한 이들에게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마태 25,41)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불

예수님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마태 5,22.29. 13,42.50 참조; 마르 9,43-48 참조)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과는 다릅니다. 최후의 심판 후에는 모든 영혼에게 육신이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에 있는 이는 육체적인 고통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극심한 지옥의 고통은 하느님과 더 이상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그곳은 지독하게 외로운 곳입니다. 이 이상으로 천국과 대비되는 곳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이르시며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 10,28)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회개와 자유

지옥은 우리에게 삶을 무심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갈라 6,7)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돌아설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시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용서 청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고집한다면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무한한 정의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창세 15,1 참조; 마태 10,28 참조).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요한 3,16 참조).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1티모 2,4 참조) 열렬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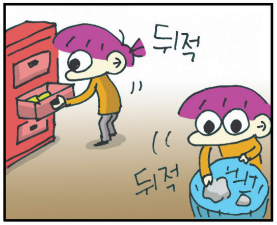
은총의 상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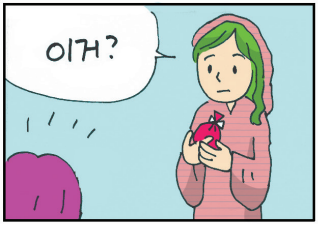
다행스럽게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도록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은총의 상태에서', 즉 하느님과의 친교 상태에서 죽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오른쪽에 달린 선한 도둑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루카 23,43) 그러나 하느님을 끝까지 부정한다면 '대죄의 상태'에서 죽을 것입니다(CCC 1033항 참조). 이 말은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면서 고의로 하느님의 명령을 거스르기로 하고 용서를 청하기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과 더 이상 친교를 나누지 않는 최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거스르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대죄는 결국 지옥의 영원한 죽음으로 이끕니다.

날으는 CYA

Vol.912 | 염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어디서 찾았어요?
달걀 바구니.
어휴~ 깊숙한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나도 찾아야겠다.
뭘요?
예수님.
무덤에 묻었는데
누가 시신을 훔쳐갔어.
음
음
어디에 계시나요 ...
아니~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믿기 어렵겠지만 ...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구요 ...
빨리 무덤에서 나와요~~
예수님!!
달걀 드실래요?
부활하신 그분을 찾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김홍주 베드로 신부
(동성고등학교 지도신부)
starriday@gmail.com

찬미예수님! 하늘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홍주 베드로 신부님이에요. 이번 성모성월 잘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들 모두 공부하느라 아니면 또 이런 저런 나름의 일들을 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미사와 교리 끝나고 따듯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도 마시고 하면서 잠시 동안이라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달에는 큰 사고가 있었어요. 바로 4월 4일 저녁 7시 즈음에 강원도 고성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 방향으로 번져서 대형 산불이 났답니다.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은 결국 700헥타르(약 7백만 제곱미터)의 임야를 포함한 많은 재산 피해를 냈지만, 규모에 비해서 인명피해는 정말 적었습니다. 바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수많은 의인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선 소방관 대원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역은 강원도였지만 전국에서 무려 872대의 소방차가 강원도 고성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소방대원 분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산불을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겠지요. 물론 정부에서의 대응과 진행도 있었겠지만, 소방대원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모여서 산불을 진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속초의료원의 간호사 분들과 직원 분들도 희생정신을 발휘하였습니다. 산불은 사고 당일 고성에서 서남서풍을 타고 순식간에 속초까지 번졌는데, 근처에 자리 잡았던 속초의료원에는 당시 112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초의료원 간호사 분들은 특히 그 중에서 자신의 집이 산불로 결국 전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는 정신으로 병원으로 발길을 향했어요.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특히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도와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랍니다.

소방대원, 간호사 분들 말고도 이번 고성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정말 많은 이들이 드러나지 않게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마태 6,3)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특히 그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어야 해요. 고성 산불 사건의 의인들은 내 자신의 상황 보다는 이웃들, 그것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들의 생명이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참조: 마태 7,12; 마르 12,31)이 바로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강물과도 같아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 때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늘마음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최고야의 성당 관찰기

최진태 글 그림 | 52쪽 | 186*257 | 바오로딸

내가 다니는 성당 지붕은 뾰족하다.
지붕 꼭대기에는 큰 십자가가 있다.
창문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알록달록하다.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다.
하느님의 집에 오면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성당 안에서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 자세로 조용히 있어야 한다.

김은정 가타리나 수녀(성바오로딸수도회)
communi@pauline.or.kr

주일이면 절로 발걸음이 가는 곳, 바로 성당이지요.
활짝 열려진 성당 대문을 통과하여 미사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
양팔을 벌리고 인자한 웃음으로 반겨주는 성모님이 보입니다. 정성스레 두 손 모아 성모님께 인사하고
성당에 들어가려다 잠시 성수대 앞에 멈춥니다.
손끝에 성수를 찍고 나서 성호경을 그으며 기도를 한 후 성당 안으로 들어가죠.
아주 자연스럽게 제대를 향해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습니다. 미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익숙한 장소에 가면 머뭇거림이 없지요. 물론 호기심도 없고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떤가요?
성당에 오면 왜 성모님께 인사를 하지? 기도를 할 때 왜 손을 모아야 하지? 성당에 들어갈 때 왜 성수를 찍지?
제대를 향해서 꼭 인사를 하나? 신부님 제의 색깔은 왜 바뀌지?
오늘은 성당에 오면 천천히 살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질문도 해보세요.
평소에 그냥 지나친 것 하나하나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답니다.